

● 우리의 생각 ●

성범죄, 아직도 피해여성 책임인가

‘여름철 범죄예방 지침’을 보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원인은 여성의 과다노출과 요조숙녀답지 못한 태도 때문인가

지난해 여름에 이어 올 여름도 시내 경찰서에는 ‘여름철 범죄예방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긴장이 풀어져서 느슨해진 문단속과 옷차림이 범법자의 범행을 부추긴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책자의 내용은 상세한 상황별 대처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일단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대목에서 심하게 노출된 여성의 옷차림이나 정숙하지 못한 태도가 범행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주된 이유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데에는 몇가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성폭력은 밀폐된 공간에서 면식범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자신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러한 범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사건 가해자가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크게 희석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많은 성범죄자들이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논리로 변론을 펴고있다. 이 논리가 당국에까지 먹혀들어가 오히려 피해 대상자들에 대한 경고로 이어지고 가해자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정당화되는 데 역이용된다면 안될 일이다.

성범죄가 날로 횡포해져 가면서 이제는 칠순을 넘긴 노인 여성들마저도 강간의 대상이 되고 여자 어린이의 피해는 더욱 증가 일로에 있다. 이런 때에 아직도 ‘꼬리를 치니까 당하지’ 하는 식의 시각과 논리는 전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남성 위주의 윤리규범과 향락 퇴폐문화속에서 자라고 윤리적 차원이 배제된 성교육만으로 성지식을 쌓아 오다가 주위에 널려 있는 음란물을 통해서 공격의 대상으로 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성범죄인들. 그들 역시 피해자라는 안목으로 한차원 높은 ‘범죄예방 지침’이 나오기를 고대한다.